

2024년 05월

월간 수산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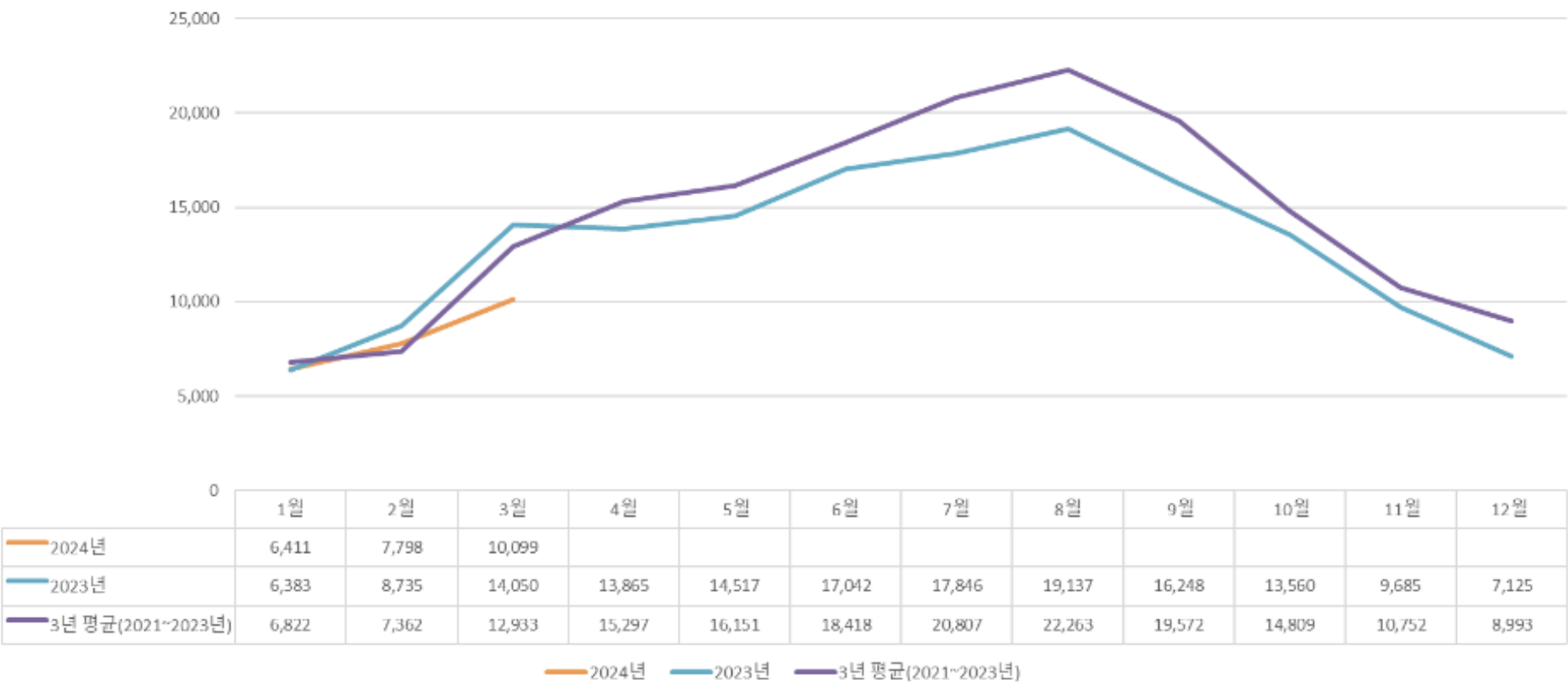
뉴스클리핑

HOT ISSUE

- 배합사료생산동향 - 양식업계 경영 악화, 사료생산량 감소세 지속
- 전복·넙치 최적 양식조건 찾는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69건·68건 방사능 검사...“모두 적합”

배합사료생산동향 - 양식업계 경영 악화, 사료생산량 감소세 지속

그림 1. 월별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량 추이 - 2021~2024년 3월



지난 3월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송어용, 뱀장어용을 제외한 모든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본격적인 수온 상승과 함께 배합사료 사용량이 증가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료비, 인건비, 전기요금 등 각종 양식경영비 상승에 따른 양식업체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배합사료 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주 넓치 양식업계의 경우 채산성 악화로 관내 넓치 양식장 10여 개소가 매물로 나올 정도로 경영 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 넙치용: 사료 생산량, 4개월 연속 감소세

넙치 양식업계 경영 악화로 인해 4개월 연속 배합사료 생산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3월 넙치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1,413톤으로 전년 동월(2,543톤) 대비 44.4% 급감했다. 3년 평균(2,464톤, 2021~2023년 평균) 동월 생산량에 비해서도 42.7% 감소했다. 2024년 1~3월 누적 생산량도 4,049톤으로 전년 동기(5,771톤) 대비 29.8% 감소했다.

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넙치 육성물량은 9,653만 마리로 전년 동월(9,263만 마리) 대비 4.2% 증가했다. 크기별 육성물량을 살펴보면 ▶마리당 250g 미만 크기는 작년 하반기 종자 입식량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4.4% 증가한 반면, ▶250~1kg 이상 크기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대체로 감소했다.

지난 3월 넙치 종자 입식량은 645만 마리로 전년 동월(640만 마리)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2024년 1~3월까지 누적 입식량은 1,248만 마리로 전년 동기(1,520만 마리) 대비 17.9% 줄어들었다.

본격적인 종자 입식시기를 맞아 종자 입식량이 늘어나면서, 넙치용 배합사료 생산량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넙치 양식산업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예년과 같은 사료 생산량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 조피볼락용: 저수온 피해 심각했던 전년보다 사료 생산량 소폭 감소

지난 3월 조피볼락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580톤으로 전년 동월(587톤) 대비 1.2% 소폭 감소했다. 반면, 3년 평균(521톤, 2021~2023년 평균) 동월 생산량에 비해서는 11.3% 증가했다. 2024년 1~3월 누적 생산량 또한 1,356톤으로 전년 동기(1,216톤) 대비 11.5% 증가했다.

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조피볼락 육성물량은 1억 2,241만 마리로, 전년 동월(1억 2,112만 마리) 대비 1.1% 증가했다. 크기별 육성물량을 살펴보면 ▶마리당 300 g 미만 크기는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한 반면, ▶출하가능한 300 g 이상 크기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저수온으로 인해 2월까지 배합사료 급여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양식업체들이 증가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대량 폐사가 발생, 조피볼락용 배합사료 사용량이 감소한 바 있다.

이에 다른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줄어든 데 반해, 조피볼락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비교적 소폭 감소에 그친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지난 3월 해황이 조피볼락 성장에 적합하게 형성되면서 배합사료 급여량을 늘린 양식업체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새우용: 지난해 질병 발생 여파, 사료 생산량 감소세 지속

지난 3월 새우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632톤으로 전년 동월(1,779톤) 대비 64.5% 급감했다. 3년 평균(1,040톤, 2021~2023년 평균) 동월 생산량에 비해서도 39.2% 감소했다. 2024년 1~3월 누적 생산량도 1,125톤으로 전년 동기(3,184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배합사료 생산업체들이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우 양식생산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새우용 배합사료 생산량을 늘렸다. 하지만 2022~2023년 2년 연속 각종 질병 발생으로 새우 양식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배합사료 생산업체들이 새우용 배합사료 생산에 본격 나서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4월 본격적인 종자 입식시기를 맞아 새우용 배합사료 생산량도 차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역시 각종 질병 발생 여부가 새우 양식생산량 및 배합사료 생산량 증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품종 개발 협업 추진 - 수과원



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소가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와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품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과원 아열대수산연구소와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다양한 유용 해산어종의 양식기반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추진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우리나라 주요 양식품종 연구 성과 공유, ▲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품종 개발 공동연구 추진, ▲ 연구 생물과 시설물의 공동활용 등이다.

협약에 앞서, 지난 5일 수과원 아열대수산연구소는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의 요청에 따라 신규 양식품종으로 연구 수행 중인 벤자리 1,500마리를 분양한 바 있다.

벤자리는 수과원의 신품종 양식연구를 통해 환경변화(수온, 염분 등)에 강한 어종임이 확인되었으며 어업인들이 양식 기술개발과 종자 보급 등을 요구한 어종이다.

전복·넙치 최적 양식조건 찾는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완도지역 양식산업의 주축인 전복과 넙치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최적의 양식 조건을 찾는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2027년까지 5년간 4억 원의 예산으로 육상양식장 20개소를 모니터링한 후, 최적의 양식장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양식 어가에 보급해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양식장별 환경조사와 양성 관리 실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올해는 품종별 생산성 증감 요인을 분석하고 생산량 감소를 최소화하는 연구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 전복 양식업

우량종자 확보가 생산성에 직결되는 만큼 전복 종자 배양장을 대상으로 수온, 용존산소, 먹이, 질병 등을 분석해 건강한 우량종자 생산 조건 찾기에 초점을 맞춘다.

▶ 넙치 양식업

생사료 공급난과 수온 상승에 따른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 3회 양식 환경조사와 병행해 양식시설 및 방법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완도 전복 양식 규모는 2023년 2,551어가, 1만 7,000톤, 4,461억 원으로 전국의 74% 수준이다. 넙치는 184어가, 1만 1,000톤, 1,800억 원 규모로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과 수산업 발전 협력 강화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최근 베트남 국립 제1양식연구소(RIAI)와 연구성과 공유 및 기술 교류 세미나를 열어 상호 수산업 발전에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베트남 제1양식연구소는 농업농촌개발부(MARD) 산하 국가연구기관으로 베트남 수산 분야 연구사업을 총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의 기술교류 내용은

- 미세조류 배양 및 양식산업에 활용
- 수산생물 질병관리시스템 개발
- 새우 전염병 통합진단시스템 개발
- 전남 해역에 적합한 대형 전복 생산성 연구
- 북베트남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체동물 개발
- 베트남 북부 해안 지역의 어류 및 연체동물 양식과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등이다.

기상과학원과 해양 기후변화 공동 대응 키로- 수과원

국립수산과학원은 5월 2일 국립기상과학원과 '해양환경·기상·기후 관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후변화 가속화로 수온 상승, 산성화, 탈산소화 등의 변화가 해양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및 인류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실용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 해양기후·환경 감시·관측 및 자료처리 기술 교류
- 기후변화 시나리오 정보공유 및 활용 연구
- 인공지능 기반 해양·기상 예측
- 연구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수과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기후변화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새우 양식업체 대상 이동병원 운영 - 수과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흰다리새우 종자 입식시기를 맞아 5월 1~3일까지 서해수산연구소 태안시험포에서 충남 지역 흰다리새우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양식장 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이동병원을 운영했다.

수과원에 따르면 어린 새우는 양식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입식 전에 수질환경을 관리하고 바이러스나 세균 병원체 등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4~5월에는 입식 초기 어린 새우(체장 약 4cm 내외)에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이 발생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

이번 이동병원은 사전에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와 협의하여 새우 질병검사를 원하는 양식 어업인들이 태안시험포로 찾아와 시료를 의뢰하거나, 직접 양식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양식장 관리요령 및 올바른 수산용 의약품 사용법 안내와 질병관리 상담서비스도 제공했다.

전복 직출하 확대, 유통단계 축소 및 시장 접근성 강화 - 수협

수협중앙회가 전복 직출하 확대를 통해 유통단계 축소 및 시장 접근성 강화에 나선다.

수협은 기존 전복 유통체계가 복잡해 가격이 비싸고, 소비자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출하를 통한 유통 인프라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협 수매사업팀은 올해 초부터 전복 주생산지인 전남 완도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전복 유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더불어 수매·보관·운송·상장판매 등 전복 직출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첫 번째 기초작업을 마쳤다.

지난 4월부터 10여 톤의 전복을 전국 5개 공판장과 노량진수산물시장에 상장해 유통시키고 있다. 향후 일반 도·소매 유통업체나 대형식당, 급식업체 등 식자재 소비처에 수주를 통해 전복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산지 어촌계를 통한 직접 수매 및 보관·운송·판매 등 전과정을 수협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 유통비용 및 마진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수요처의 기호와 요구사항을 직접 생산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상 수조식양식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집중 점검 - 제주시

제주도 제주시는 청정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육상 수조식양식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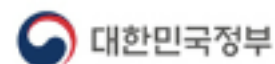


▶ 점검대상: 수면적이 500 m² 이상인 기타수질오염원 93개소 중 지난해 점검을 받은 사업장을 제외한 62개소

▶ 점검사항

- 침전조, 거름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 침전물 등의 적정 처리 여부
- 수질오염물질 방류 의심 사업장은 배출수 시료를 채취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 확인

한편,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가 4월 1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과 사업장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5.17.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제228차 일일브리핑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69건, 유통단계 68건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7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동해역 2곳, 남중해역 2곳, 원근해 13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